

심재 조공섭의 비슬산 은일과 그 의미

김종구*

|| 차례 ||

- I. 서론
- II. 심재 조공섭의 비슬산 은일
 - 1. 이상향 지향과 서정성
 - 2. 산수를 통한 수신과 서재 및 광거당 강학
 - 3. 실질적인 道學 실천
- III. 지조와 절개를 지킨 求道的 인격체 완성
- IV.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深齋 曹兢燮(1873-1933)이 은일한 비슬산에 관심을 가졌다. 즉, 그의 비슬산 인식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도출하였다.

심재 조공섭의 비슬산 은일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는 은일을 지향하여 서정을 즐기는 공간으로 인식했다. 근대전환기의 불우한 시대를 잠시 잊고 비슬산, 산수에 노닐며 더욱 깊이 들어가 은일하고자 했다. 둘째,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의 광거당·정산·쌍계 일대를 강학문화 공간으로 인식했다. 이 지역은 대구의 선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아울러 강학문화의 성소로 자리했다. 셋째, 그는 비슬산 일대를 실질적으로 도학을 실천하는 공간으로 인식했다. 심재 조공섭은 虛名뿐인 근대전환기의 선비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학을 실천한 선비였다.

심재 조공섭이 비슬산에서 행한 문화는 우선 지조와 절개를 지킨 백이숙제를 떠오르게 한다. 그는 이들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의 수양뿐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도 발현하였다. 이는 모두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求道的 인격체를 완성하기 위한 노력

* 남명학연구원 사무국장. piny0928@hanmail.net

이었다.

비슬산은 팔공산과 함께 대구의 주요한 산이다. 조공섭이 근대전환기에 비슬산을 중심으로 일으킨 전통 유학의 선비문화는 전시대를 아울러 주목할 만하다. 상실해 가던 전통 유학문화의 전승과 망해 가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강한 힘과 초석을 마련한 것이다.

주제어 : 심재 조공섭, 비슬산, 은일, 서정, 講學, 수양공간, 道學, 애민공간, 지조와 절개, 求道

I. 서론

비슬산에 대한 최초의 관심은 『삼국유사』 「피은·포산이성」에 언급된 것처럼 일연과 관련이 있다. 일연은 관기와 도성이 비슬산에 살면서 가진 友道에 관심을 가졌고, 반사와 첩사에 관해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망우당 광재우가 잠시 비슬산에 은일한 것이 유명하다. 하지만 논자는 시대를 훌쩍 뛰어 넘어 근대전환기의 인물, 심재 조공섭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심재 조공섭은 11세에 『근사록』 1책을 필사하였고, 17세에 면우 광중석(1846-1919)을 찾아가 태극과 성리서에 관해 논하였다. 19세 이후 만구 이종기를 찾아가 배움을 청했고, 임진년에는 녹리 장복추(1815-1900), 계사년에는 병용 김홍락을 알현하는 등 거유를 방문하며 학문을 성장시켰다.

심재 조공섭은 23세에 중간 『남명집』의 교정을 맡으면서 남명학과와 교유를 하였다. 38세에 일어난, 1910년 경술년 8월의 경술국치, 즉 나라가

망한 사건은 그의 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듬해 부친상을 당해, 그는 바로 은일을 하지 못하고 3년의 시묘살이를 행했다. 그 이후 42세, 1914년 2월에 가족을 데리고 비슬산 북쪽, 鼎山(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정대리)으로 들어갔다. 1915년 국토기행을 나서, 당대 현실을 정확히 관찰하고 인식하기도 했다.

본고는 심재 조공섭이 鼎山에 은일한 이후시기에 관심을 가진다. 하지만 그의 산수에 대한 인식과 비슬산에 대한 인식은 전 생애의 작품과 행위를 유추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경술국치 후 영남 선비의 행위를 통해 한말 유학자의 문화의 한 단면 및 시대적 실천을 엿볼 수 있다. 본 논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갈 것이다.

첫째, 深齋 曹兢燮(1873-1933)이 근대전환기의 영남 유학자인 것에 관심을 가진다. 당대의 유학자들은 한문학자의 마지막 세대로 일제의 침략에 저마다 선택한 삶을 고수하며 대처하고 살아갔다. 주지하다시피 개화파와 보수파로 양분하고 다시 온건파와 급진파로 세분화된다. 즉 급진개화파·온건개화파·온건보수파·수구파로 나뉜다. 근대전환기는 일제 침략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물려 한문학이 역동적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기에 당대 유학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둘째, 근대전환기 유학자의 출처관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공자가 그러했듯이 난세의 출처에 대한 문제는 선비의 심각한 고민거리이다. 심재 조공섭은 갑신정변(1884), 갑오개혁·을미개혁(1894-1896), 경술국치(1910) 등의 큰 역사적 사건에 직면하며 거처 나가게 된다. 위의 첫째를 인지하며, 나아가 심재 조공섭의 출처와 비슬산 은일의 배경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셋째, 심재 조공섭이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비슬산에서 행한 행위 및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선비가 이 세상에 태어나 이미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면 마땅히 만산심처로 들어가서 풀로 옷을 해서 입고 나무 열매로 배를 채우며 세상과 서로 소식을 끊고 살아간다면 오히려 능히 본연의 부끄러움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¹⁾

위의 글에서 심재 조공섭이 가지는 전형적인 선비의 삶과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선비의 근본을 지키고, 나라를 잃은 경우에도 선비의 뜻을 고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서 그의 평소 산수관도 잘 드러나고 있다. 심재 조공섭은 국권을 잃게 되자, 산수에 물러나 그가 지향하는 선비로서의 지조와 도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넷째, 당대 영남 산수 비슬산과 인물의 관련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자 한다. 당대 영남의 유학자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거나, 지조를 지키고자 노력했다. 후자의 경우, 비록 망국의 슬픈 현실 상황이지만, 당대 시대를 벗어나 전통의 道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들에게 산수 공간은 학문을 하고 실천하는 공간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내 인생 지금 얼마쯤인가?	吾生今幾許
스물일곱 번째 봄이 돌아오네.	二十七回春
이 나이에 諸葛孔明은 오두막집을 떠났고,	諸葛辭廬日
蘇洵은 문을 닫고 책을 읽었던 때이로구나.	蘇洵閉戶辰
經綸을 아직 손에 넣지 못하였으니,	經綸未入手
書籍을 읽으며 또 몸을 잘 간직해야지.	書籍且藏身
스스로 우스운 것은 무슨 일 때문에,	自笑緣何事
떠들썩하게 세상 사람들을 쫓아 다녔던가 라네.	囂囂逐世人 ²⁾

1) 조공섭, 『심재속집』 10, “士生斯世, 旣不能躡山蹈海, 要當入萬山深處, 草衣木食, 不與世相聞, 猶能保全本然之恥.”

2) 조공섭, 『深齋集』 2, 「自笑」.

위의 글은 심재 조공섭이 經世의 길에서 求道의 길로 접어드는 성향을 알 수 있다. 그는 제갈공명보다 소순의 길을 선택하고자 했고, 산속에 은일하여 경전 및 서적을 읽으며 몸소 자득하고자 했다. 심재 조공섭의 삶의 행보와 학문의 방향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심재 조공섭에 관한 선행연구는 성리학³⁾ 관련, 여성 인식 관련⁴⁾, 남명학과 관련⁵⁾, 문장론, 시론 등이 있다. 성리학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성학팔도병설』에 대한 분석과 주자, 퇴계학설 수용과 심학의 수양론⁶⁾에 관한 논의가 있다. 또 통섭과 회통의 학문지향과 자득의 경학⁷⁾을 논한 논의가 있다. 심재 조공섭과 문학과 관련한 연구는 시, 문장론이 있다. 시와 관해서는 시인식⁸⁾과 기행시와 영사시⁹⁾를 중심으로 논한 논의가 있고, 문

3) 성리학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의가 있다.

임종진, 「한주학파의 성리학에 대한 심재 조공섭의 비판」, 『한국학논집』제7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pp.153-181.

신승훈, 「深齋 曹兢燮의 思想과 經學에 관하여 - 經學의 言述에 대한 評價를 檢하여」, 『동양한문학연구』제25집, 2007. pp.187-226.

천병돈, 「深齋 曹兢燮의 王陽明 비판」, 『한국학논집』제5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pp.177-202.

천병돈, 「深齋 曹兢燮의 ‘格物’설 연구」, 『陽明學』제39집, 2014. pp.145-169.

4) 강성숙, 「深齋 曹兢燮의 여성 인식 연구」, 『동양한문학연구』제46집,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2017. pp.5-36.

5) 강동욱, 「심재 조공섭의 남명학 계승의 일단면」, 『선비문화』제11집, 2007. pp.92-100.

6) 임종진, 「深齋 曹兢燮의 修養論」, 『영남학』제11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pp.45-72.

7) 신승훈, 「深齋 曹兢燮의 學問方向과 經學에 관한 一考」, 『영남학』제11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pp.123-149.

8) 김보경, 「심재 조공섭의 시 인식 고찰」, 『大東漢文學』제42집, 대동한문학회, 2015. pp.381-421.

9) 강구율, 「심재 조공섭의 시세계의 한 국면-기행시와 영사시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제22집, 동방한문학회, 2002. pp.97-114.

이재도론의 자장안에서 도덕문장론¹⁰⁾을 논한 논의가 있다. 그 외에 문학에 관한 일반론¹¹⁾과 부¹²⁾에 관한 논의와 한시에 나타난 『논어』 수용 양상¹³⁾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분석하면 첫째, 심재 조공섭의 철학과 사상을 논한 것이 대다수이다. 둘째, 문학의 경우 일반적인 논의가 전부이지만, 『논어』와 기행시에 관한 논의가 주목할 만하다. 셋째, 비슬산과 심재 조공섭에 관한 논의가 없다. 심재 조공섭의 산수공간에 대한 인식, 즉 비슬산에 대한 인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물과 명산은 퇴계=청량산, 남명=지리산의 공식처럼 일반화, 성역화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 중류의 비슬산 역시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의 중요한 산이고, 강안학이 형성된 주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넷째, 심재 조공섭과 지역에 대한 문화사적 측면의 논의가 없다. 이러한 문화어문학은 인문학의 소통과 활로를 모색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삼국유사』 「괴은·포산이성」에 언급된 관기와 도성, 반사와 첩사의 기록과 망우당 객재우가 잠시 은일한 공간으로만 알려진 비슬산에 주목하는 것이다. 비슬산은 팔공산과 더불어 대구의 중요한 명산이다. 여

10) 김진근, 「深齋 曹兢燮의 道德文章 추구 논리」, 『嶺南學』제11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pp.101-122.

천병든, 「蘭谷 李建芳과 深齋 曹兢燮의 도덕문장론」, 『陽明學』제38집, 한국양명학회, 2014. pp.101-126.

강동욱, 「深齋 曹兢燮 文論」, 『南冥學研究』제5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5. pp.201-224.

11) 강동욱, 「深齋 曹兢燮의 學問性向과 文論」, 경상대학교 국어국문 박사논문, 2000. pp.1-184.

12) 김애이, 「深齋 曹兢燮의 文學論과 賦의 特性」, 全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박사논문, 1996. pp.1-100.

13) 황명환, 「근대전환기 한시의 『論語』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響山 李晩燾와 深齋 曹兢燮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16. pp.1-111.

기서 근대전환기 유학자, 심재 조공섭이 비슬산에 은일하여 행한 행위 및 문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암울한 시기를 비슬산에서 헤쳐 나가는 모습은 산과 인물의 관계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말유학자가 난세를 통과하면서 가진, 산수 공간인식과 선비문화의 한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암서집』¹⁴⁾에 나타나 있는 비슬산 관련 키워드¹⁵⁾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4) 본고 텍스트의 번역은 고전종합DB(<http://db.itkc.or.kr>)의 『암서집』 번역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15) 다음은 필자가 『암서집』을 중심으로 비슬산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류했다.

- 詩：「柳晦數書來有詩六絕 次韻奉寄」·「同崔鶴溪 煥模 留淵寺 課諸生所作」·「鄭純可 敏錫 自山清見過有作 次韻爲贈」·「吐含山奉次先祖侍中公韻 侍中公諱欽 羅亡後入吐含山 有詩曰千年王業一朝塵 白首孤臣淚滿巾 借問首陽何處是 吐含明月自相親」·「夜入湧泉寺」·「同諸友訪柳和一」·「挽河景寶 載國」·「瑜伽寺用金英憲韻 效其體」
- 書：「答金都事 奎華 癸丑」·「與盧小訥 相稷 甲寅」·「答辛公春 東植 戊辰」·「答金學夫 永善 己未」
- 序：「孫敬執大人壽詩帖序」 乙丑
- 記：「山泉精舍記」
- 哀辭：「李道三哀辭」 己未·「高士圭哀辭」 癸亥
- 祝文：「燕巖壇所立石告由文」 辛亥·「琵琶山祈雨文 爲里人作」 甲子
- 祭文：「祭族祖 有弘 文」 甲寅·「祭妻兄盧公 秀憲 文」·「祭族祖春庵文」·「祭從表兄李公 秉秋 文」
- 墓誌銘：「碧桂軒金公墓誌銘」 甲寅·「志巖金處士墓誌銘」 戊午·「府使金公墓誌銘」 庚午
- 墓碣銘：「光州盧公墓碣銘」 乙卯·「孺人崔氏墓碣銘」·「松窩崔公墓碣銘」·「卞廈瑞墓碣銘」·「承訓郎肇慶廟令曹公墓碣銘」·「蔡處士墓碣銘」·「趙處士墓碣銘」·「白處士墓碣銘」·「李君墓碣銘」
- 墓表：「秀士權君墓表」 戊午
- 傳：「成叟傳」 己巳

II. 심재 조공섭의 비슬산 은일

1. 이상향 지향과 서정성

주자는 무이산에 은일하여 무이정사를 지었다. 그는 책을 읽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산수를 벗하고 있었다. 주자의 시, 「은구재」를 통해 그의 구체적인 생각¹⁶⁾을 엿볼 수 있다. 도가 실행되지 않는 난세에 선비들은 이처럼 물러나 학문을 탐구하고 산수의 아름다움을 즐기고자 했다. 심재 조공섭의 시대 역시 불우한 시대였다. 외세 침략의 시대, 일제 강점기라서 더욱 출사를 하여 선비의 도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심재 조공섭은 이러한 불우한 시대에 은일을 하여 학문을 탐구하고, 산수의 아름다움을 벗하며 그 이상과 서정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마침 내가 집을 옮겨 琵琶山 북쪽으로 들어가 지내면서 번잡하게 사람을 접하는 일로 괴로하여 응하지 못하였다.¹⁷⁾

심재 조공섭은 1914년 2월에 가족을 데리고 비슬산 북쪽, 鼎山으로 이사를 한다. 이는 최치원이 가족을 데리고 가야산에 은일하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비록 시대는 신라 후기와 조선 후기로 다르다. 하지만 신라가 망할 조짐과 조선이 망한 사실, 즉 나라가 망한 사실에 비분강개하여 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는 42세에 비슬산에 들어가 1933년 61세로 죽을 때까지 은거하게 된다. 그가 노년에 지은 시를 살펴보면, 간절히 비슬산 깊은 곳으로 은거를 지향했고 산수를 즐기는 서정을 지향했음을 확인할 수 있

16) 김중구, 「17세기 영남지역 산수유기 연구 - 청량산·지리산·가야산을 중심으로 -」, 경북대 박사논문, 2018. pp.129-130 참조.

17) 조공섭, 『암서집』 20, 「山泉精舍記」, “屬余搬家入瑟山之陰, 疲於冗接, 未有以應也.”

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아름다운 패옥 걸친 유 유주는,	玉佩瓊琚柳柳州
우계 좋은 곳에 그윽한 터 잡았는데.	愚溪佳處定尋幽
비슬산 나그네는 참으로 우습게도,	瑟山客子眞堪笑
서풍에 떨어진 도토리밤을 줍지도 않네.	橡栗西風落未收

도곡의 경치 누가 천하에 기이하다 했던가.	陶谷誰言天下奇
푸른 물줄기가 흰 바위로 쏟아져 내리네.	清流素石略相瀉
평생 나는 헛된 이름 도적질해 왔거니,	平生我自盜虛名
가벼이 믿은 그대가 허물이 아니겠는가.	輕信君今無乃過

풍류스러운 위개를 눈앞에서 보는 듯,	風流衛玠眞如見
미치광이 장용 자태 또한 없지 않구나.	狂態張融亦不無
무거운 산을 천리에 옮기려도 할 수 없어,	千里重山移未得
세상 사람들 끝내 나의 어리석음을 비웃네.	世人終笑酒公愚 ¹⁸⁾

위의 글은 「유희부가 보내온 편지에 절구 여섯 수가 있어서 그 운을 따라 지어서 부치다」이다. 유희부는 澤齋 柳潛(1880-1951)으로 侁宇 郭鍾錫(1846-1919)과 심재 조공섭의 문인이다. 유잠이 「조심재 중근 궁섭에게 부쳐 보냄」¹⁹⁾라고 시를 보내자 심재 조공섭이 화답시를 지은 것이다.

유잠은 심재 조공섭이 방장산(비슬산)에서 신선처럼 노니는 모습을 부

18) 조공섭, 『암서집』 4, 「柳晦敷書來有詩六絕 次韻奉寄」

19) 유 잠, 『澤齋集』 1, 「寄曹深齋仲謹 兢變」, “聞君二十遊方丈, 七字詩成萬目驚, 一時杯酒淋漓席, 湜籍紛紛讓主盟, 風塵抱籍走邱州, 琵琶山增一度幽, 髭髮差池形日索, 斯文哀恨摠難收, 人間玉燭困言筆, 心血朱殷字字香, 一放可逃林底鬼, 名山石室奈韶光, 東風勢猛國魂漂, 潦倒多時志未昭, 請子手勤投寸膠, 黃河朝暮澄如霄, 四海崎裝千古哀, 西來直向水簾瀉, 誰道丈夫持餓色, 口吸人間灑氣過, 曹氏所居, 有陶谷水簾, 稱南方奇絕.”

러워하고 속세를 떠나 초세하며 은일한 모습을 칭송하고 있었다. 심재 조공섭 역시 자신의 삶을 유종원의 우계의 삶에 빗대고 있다. 그는 만년에 도곡에 은거했다. 도곡은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자모리에서 구지면 도동리로 가는 중간의 道東書院 고개 넘어 좌측에 있는 골짜기 이름이다. 위의 시는 심재 조공섭이 雙溪書堂에 은거하고 있었던 시점이다.

심재 조공섭은 도곡의 아름다운 폭포에서 소요하며 산수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유잠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심재 조공섭은 여기서 누리는 삶의 즐거움과 헛되이 세상에 이름난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 이 당시는 1928년 겨울에 문인들의 요청으로 정산에서 비슬산 서쪽 雙溪로 이거한 시점이다. 그리고 1930년 龜溪書堂을 지어 강학을 한 시점이기도 하다. 심재 조공섭은 1933년 61세로 죽었으니, 이 시는 그의 마지막에 가까운 삶의 기록이었고, 그의 명성이 이미 세상에 드러나고 있었던 시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겸손하게 이름 없는 隱逸處士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심재 조공섭은 산수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서정을 즐기고 있었다.

그 옛날에 헤어질 땐 아이였더니,
 둘이 모두 노인 되어 다시 만났네.
 몸은 이제 곡구에 숨어 살지만,
 이름 이미 책 속에 전하여졌네.
 금리의 봄 강물은 일렁거리고,
 비산의 돌길은 허공에 달려.
 그대에게 의지해서 맑은 꿈꾸어,
 방장산 구름 덮인 하늘로 드네.

昔別俱童齒
 重逢各暮年
 身方谷口隱
 名已卷中傳
 錦里春江濶
 毘山石路懸
 憑君作清夢
 方丈入雲天²⁰⁾

20) 조공섭, 『암서집』 5, 「鄭純可 敏錫 自山清見過有作 次韻爲贈」

위의 시, 「정순가가 산청에서 다녀가면서 시를 지었기에 차운해서 주다」의 鄭純可는 鄭敏錫(1876-?)으로 侁宇 郭鍾錫(1846-1919)의 문인이다. 그는 지리산 가까이 경상남도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에 거주하였다. 위의 시에서 말한 谷口는 중국 漢나라의 鄭子眞이 은거한 곳이다. 주지하다시피 정자진은 修道墨守하여 권세가인 王鳳의 禮聘에 응하지 않은 谷口子眞²¹⁾으로 유명하다. 심재 조공섭은 세상의 영달과 이익을 꾀하지 않은 정민석을 떠오르며, 그 역시 은거를 지향하고 있었다.

정민석은 지리산에 그는 비슬산에 은거했다. 이들은 속세를 떠나 은자의 삶을 즐기고 있었으며, 아름다운 산수를 벗 삼아 그 서정을 즐기고 있었다. 또 심재 조공섭은 용연사의 아름다운 선경에서 중국의 지둔이 당대 謝安(320-385), 王羲之(307-365)의 교유한 것처럼 崔煥模(1862-1947) 등과 시를 짓고 교유하며, 그 서정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숲에 올라 잔도 밟고 한 줄기 사내 뚫고, 맑은 물에 흰 돌 깔린 동천에 다다랐네. 푸른 벼랑 낀 구름은 늘 비를 머금었고, 갠 봉우리 해 뜰 때는 절로 안개 생겨나네.”²²⁾라고 하여 맑고 깨끗한 용연사 주변의 산수를 노래하며 신성스러운 공간으로 칭송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백이숙제는 주나라가 망하자, 수양산에 들어가 은일한 淸節之士이다. 심재 조공섭도 조선이 망하자 비슬산에 은거할 계획을 세우고, 이후 가족을 데리고 산 깊숙이 들어가 실천에 옮겼다. 심재 조공섭은 은일을 하여 당대의 혼란함을 잠시 잊고, 산수와 더불어 그 서정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속세의 시름을 잊었고, 그 서정의 경물은 비슬산의 돌과 바위, 나무, 산수 그대로의 자연이었다.

21) 『漢書』 72, 「高士傳」 참조.

22) 조공섭, 『암서집』 5, 「同崔鶴溪 煥模 留淵寺 課諸生所作」, “攀林踏閣一溪穿, 白石清流到洞天, 翠壁宿雲常欲雨, 晴峰初日自生烟.”

2. 산수를 통한 수신과 서재 및 광거당 강학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에 은일을 하여 서정적 낭만만을 즐기고 있진 않았다. 그는 몸소 수신을 하며 실천을 하고자 했다. 이미 그는 저명한 인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변의 선비들이 몰려들었다. 그 공간의 중심은 심재 조공섭이 거주하고 있는 비슬산이었고, 지금의 남평문씨세거지의 광거당이였다. 광거당은 대구 주변 유림이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입지적 조건과 여기에는 수많은 장서와 희귀한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로써 심재 조공섭의 학문은 더욱 성장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공자가 『주역』을 찬술할 때 64괘 가운데 물(坎)이 있는 것이 모두 열다섯 괘인데 구름을 일컫는 것이 둘, 비를 일컫는 것이 하나, 그 나머지는 모두 물을 일컫었다. 오직 산과 물이 합하여 이루어진 「蒙卦」의 象에 말하기를 “산 아래 샘이 나오는 것이 몽이니 군자가 이를 본받아 행실을 과단하게 하며 덕을 기른다.”(“山下出泉蒙, 君子以, 果行育德.”)라고 하였고, 또 象에 말하기를 “몽에 바름을 기름이 성인이 되는 공이다.”(“蒙以養正, 聖功也.”)라고 하였다.²³⁾

위의 글은 「山泉精舍記」이다. 심재 조공섭이 비슬산 북쪽으로 은거하여 번잡한 사람들을 피하고 자신의 수양만을 일삼고 있을 때, 天嶺에 사는 盧洛卿²⁴⁾이 방문하여 山泉精舍 기문을 지어줄 것을 청했던 것이다. 공자가 『주역』을 찬술한 예를 가지고 와서 산수를 통해 성인의 덕으로 나아가

23) 조공섭, 『암서집』 20, 「山泉精舍記」, “夫子之贊易也, 卦之爲水者凡十有五, 而稱雲者二稱雨者一, 其餘皆水也, 獨山水之象曰山下出泉蒙, 君子以果行育德, 又曰蒙以養正, 聖功也.”

24) 노낙경은 盧銅壽(1876-1946)를 말한다.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竹谷에 거처했다. 그는 俛宇 郭鍾錫(1846-1919)의 문인이다.

는 전범을 제시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자의 한천정사의 고사를 가지고 와서 논술을 하며, 비슬산에서 적극적으로 수신을 하고 수양을 하여 실천하고 있었다. 즉 그는 「산천정사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산수관 및 수양관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 아래 수많은 현자가 많이 배출되고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었다. 점필재 김종직의 제자·한훤당 김굉필·한강 정구의 제자 등 영남 사림의 중심축이 되는 인물들이 이곳에서 수신을 하며 학문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는 「연암 단소 입석 고유문 신해년(1911)」에서 “우뚝하니 솟아있는 비슬산, 그 안의 인걸들이 빼어났나니.”²⁵⁾라고 칭송을 하고 있었다. 심재 조공섭 역시 이곳 비슬산에서 성인과 현자를 지향하며, 적극적으로 수신 및 수양을 하고 있었다.

나와 심재 그리고 수봉이 자리를 함께 하고 서로가 경서의 오묘한 뜻과 명리의 미묘함과 시사와 인품의 득실과 현부를 의논하며 밤이 다 하도록 그칠 줄 몰랐다. 그 사이에 간혹 내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중근(심재의 자)이 풀어주었고 또한 중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장지(수봉의 자)가 그것을 알았다. 내 마음 속으로 심히 놀라고 감탄하여 개인적으로 중근에게 물어 말하기를 ‘장지가 이미 이에 이르렀는가.’하니, 중근이 이르기를 ‘그렇다. 이것이 어찌 장지의 모든 것이겠는가. 그 기량은 넓고 그 포부는 크며 언변이 있으나 묵묵하며 지혜를 펴지 않고 남보다 먼저 하지 않으니 이가 곧 장지이다. 바로 우리들 열 수레라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다.²⁶⁾

위의 글은 1918년에 있었던 이야기로 회봉 하점진이 찬한 수봉정사 기문에 나온다. 수봉 문영박은 광거당의 만권당²⁷⁾에서 심재 조공섭을 비롯

25) 조공섭, 『암서집』 25, 「燕巖壇所立石告由文」 辛亥, “瑟岳崔崔, 間挺人傑.”

26) 문희웅, 『인홍록』, 규장각, 2003. pp.34-105 참조.

27) 만권당에 관해서는 문희웅, 『인홍록』, 규장각, 2003. pp.28-34 참조.

한 여러 선비들과 학문과 문화를 교류하였다. 만권당에는 귀중한 문헌과 자료가 많았고, 이를 참고하기 위해 주변의 학자들은 교류와 왕래가 끊이지 않았다.

심재 조공섭뿐만 아니라 근재 정지순, 다곡 이기로, 백괴 우하구, 소암 김현동 등 영남의 거유들이 수시로 광거당에 모여서 강학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 위의 글은 심재 조공섭, 회봉 하겸진과 수봉 문영박 그리고 회봉 하겸진이 의문이 나는 경전의 뜻을 강론하면서, 인격과 국량이 점점 넓어지고 광활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강학의 중심은 서당이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서당이 완성되었다고 하니 기거하며 수양할 장소를 얻으신 것을 우러러 기뻐합니다. 이로부터 절도를 간략히 하고 한가로이 응수하며, 정신을 기르고 기운을 단련시켜 한 몸을 평안하게 하여 못사람의 바람에 보답할 계획으로 삼으시길 저는 매우 간절하게 바랍니다.”²⁸⁾

위의 글은 심재 조공섭이 소눌 노상직에게 보낸 편지, 「소눌 노상직에게 드림(1914)」이다. 노상직은 性齋 許傳(1797-1886)의 문인으로 경술국치 후 장석영과 함께 遼東으로 가서 앞서 망명한 大訥 盧相益(1849-1945)과 합류하였다. 노상직은 1913년 만주 망명지에서 밀양시 단장면 무릉리로 돌아와 紫巖書堂을 지어 18년간 기거하며 학문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그는 『소눌집』·『歷代國界考』·『曆考』·『六官私議目錄』·『深衣考證』·『朱子性理說節要』 등을 지을 수 있었다.

심재 조공섭은 노상직의 강학, 학문, 수양공간인 자암서당이 완성됨을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심재 조공섭이 생각한 당대의 혼란한 시국을 지나

28) 조공섭, 『암서집』 9, 「與盧小訥 相稷」 甲寅, “書堂之成, 仰喜藏修得所, 從此簡節 閒酬, 頤神鍊氣, 以爲康濟一身, 報答衆望之計, 區區深切懸仰也.”

가는 지표는 서당을 지어 전통문화 교육을 하고, 강학을 하며 저술활동을 하는 등의 전통강학문화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학의 서당 설립은 심재 조공섭에게 중요한 동반자가 되었고 힘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심재 조공섭이 실천한 구체적인 강학을 알 수 있는 글이다.

나는 李道三 군을 成童일 때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鼎山으로 들어오게 되자, 군은 벗들과 함께 쫓아와서 배웠다. 그때 함께 생활하던 사람은 열 몇 명이었지만, 나는 군이 온화하고 고요하고 부드럽고 은혜로워, 겉으로는 말하는 것이 서투른 듯해도 안으로는 실제 명민한 것을 유독 특별하게 생각 하였다.²⁹⁾

위의 글은 「이도삼 애사 기미년(1919)」이다. 심재 조공섭이 비슬산의 정산으로 은거를 하자, 평소 그를 존경하던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 배움을 청했던 것이다. 심재 조공섭은 은거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열 몇 명) 모른 척 하고 내치지 못했던 것이다. 그는 비슬산의 정산에서 강학을 하며 후진을 양성하고 있었다. 이도삼은 그 중, 아주 열성적이고 기억에 남는 제자였다. 심재 조공섭은 “어찌해 사람들은 사랑했는데 하늘은 미워했나, 내 집에 들어오자 군의 목소리 들리는 듯.”³⁰⁾이라고 하여 이도삼의 안타까운 요절을 슬퍼하고 있었다.

이도삼의 아버지가 “집의 애는 올해에 애써 문하에서 배우고자 하면서, 마음이나 말이나 언제나 정산에 가 있지 아니한 적이 없었습니다.”³¹⁾라고

29) 조공섭, 『암서집』 25, 「李道三哀辭」 己未, “李君道三, 余自其羈貫而識之, 及余入 鼎山, 而與其群從來學, 當是時與之處者十數人, 余獨異君之和靜柔惠, 外若拙訥 而內實明銳.”

30) 조공섭, 『암서집』 25, 「李道三哀辭」 己未, “胡人所愛兮天所憎, 升吾堂兮芬聞其 聲.”

31) 조공섭, 『암서집』 25, 「李道三哀辭」 己未, “則含淚言曰兒今年力欲遊學, 心語間 未嘗不在鼎山.”

한 것에서 당대 심재 조공섭의 위상을 정확히 알 수 있다. 이도삼은 스승, 심재 조공섭을 존숭하였고 그의 문하에서 학문을 증진하고자 했지만 일찍 요절을 한 것이다. 스승인 심재 조공섭은 제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여 애사와 만시를 남기고 있었다. 이처럼 비슬산, 비록 깊은 산속인 정산이었지만, 심재 조공섭은 강학 문화를 펼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심재 조공섭의 또 다른 애사, 「고사규 애사 계해년(1923)」에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애사에서 “내가 琵琶山에 들어오던 해의 겨울에 高生 玄達 士圭가 찾아와서 『논어』를 배웠다. 그때 함께 생활하던 사람은 열 몇 명이었는데, 방은 겨우 한 말 들이 뒷박처럼 작았다.”³²⁾라고 하였다. 비슬산 깊은 산속, 정산까지 심재 조공섭을 따르는 문도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강학을 통해 오히려 스승인 심재 조공섭이 제자에게 감동을 받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高玄達(?-1922)은 비록 가난하지만 부모님을 잘 봉양하였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잘 했으며, 학문에 대한 열정도 탁월했다. 제자의 이러한 모습에 심재 조공섭은 강학의 즐거움과 당대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제자들이 요절을 하는 바람에 그의 시름 역시 깊어만 가게 되었다.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에 은일하여 동료 유학자들과 교유를 하면서 강학을 했다. 광거당은 그 중심축을 형성하는 공간이었다. 물론 심재 조공섭이 기거하는 서재 역시 중요한 공간으로 작용했다. 심재 조공섭은 더욱 비슬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강학을 요구하는 현실을 저버릴 수 없었다. 그래서 후학을 잘 가르쳐 스승과 제자가 모범이 되는 강학문화를 형성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교육은 당대 혼란한 시국을 개척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동류와 일귀낸 심재 조공섭의 강학문화는 자신

32) 조공섭, 『암서집』 25, 「高士圭哀辭」 癸亥, “余入山之歲之冬, 高生玄達士圭來學論語, 時同處者十數人, 室僅如斗.”

의 수신과 수양이 지극했기 때문에 가능한 실천적 지사의 모습이었다.

3. 실질적인 道學 실천

심재 조공섭은 “선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천 명이나 되지만 도를 구하는 사람은 한 명 뿐이라는 것은 옛 현인이 탄식하였던 것인데, 하물며 지금 세상에 또 말할 수 있겠습니까.”³³⁾라고 하며 당대의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당대 선비들이 선비라는 허울만 가진 채 제대로 도학을 실천하지 않는 모습을 비판한 것이다. 심재 조공섭은 혼란한 시대일수록 더욱 학문을 탐구하고 수양하여 도학을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그가 비슬산에 은일한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진실로 공섭이 부유하려고 하였다면 십 년 사이에 知舊와 朋友들이 田宅을 마련하여 맞이하고 청한 사람들이 빙 둘러 섰으니, 한 번만 따랐더라도 편안히 지내고 배불리 먹으면서 해를 마치도록 걱정이 없을 것인데, 지금에 와서 저 안락한 고을을 버리고 이 춥고 괴로운 곳에 나아가 처자식들에게 괴이하게 여겨지고 욕먹는 것은 진실로 무슨 의도이었습니까. 가르쳐주신 鵝溪와 修庵이 가난을 견뎌 내었던 절조는 공섭이 평소 진실로 능하지 못한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바로 이것을 배우고자 할 따름입니다.³⁴⁾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 은거 이전 4-5년 전부터 가족을 데리고 비슬산으로 은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부모가 연로했고, 자제들의 병

33) 조공섭, 『암서집』 13, 「答丁君瑞」 壬戌, “夫儒名者千而求道者一, 昔賢所歎, 況今之世.”

34) 조공섭, 『암서집』 8, 「答金都事 奎華」 癸丑, “然誠使競而欲富也, 十年之間, 知舊朋友之具田宅以邀請者相環也, 一從之則可以安居飽食, 卒歲無虞, 而今乃捨彼安樂之鄉, 就此寒苦之地, 爲妻孥所怪罵, 誠何意耶, 所教鵝溪, 修庵耐貧之節, 競平日誠所未能, 自今以往, 正欲學此耳.”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다가, 더욱이 부모의 상을 당해 또 3년의 세월이 지나갔다. 이와 같은 그의 비술산 은일은 주변에서 개인의 사사로움과 부유함을 구하는 것이라 오해를 받았다. 위의 글, 「김도사 규화에게 답함 계축년(1913)」에서 알 수 있듯이, 심재 조공섭은 왜 비술산 북쪽 깊은 골짜기로 들어간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이 시기에 심재 조공섭은 人事가 분주해 독서를 많이 할 수 없었고, 학문을 견고하게 할 수 없어 스스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창강 김택영이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나라의 운명을 개탄하며, 1905년 가족을 데리고 중국으로 망명한 사실을 존송하고 부러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鵝溪와 修庵이 안빈낙도를 실천한 삶을 칭송하고 있었다.

아계 이산해³⁵⁾는 재상의 반열에 올랐으나 가난하고 누추한 삶을 살며 도를 지킨 인물이고, 수암 류진³⁶⁾은 죽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지만 편안한 삶을 살며 도를 즐긴 인물이다. 창강 김택영 · 아계 이산해 · 수암 류진을 통해 심재 조공섭은 삶의 지표를 내세우고 있었다. 이들이 실천한

35) 이덕형, 『한음선생문고』 12, 「輸忠翼謨光國推忠奮義協策平難功臣 大臣輔國崇祿大夫 議政府領議政 鵝城府院君李公墓誌銘 并序」, “일찍 재상의 반열에 이르렀으나 기와 한 장을 덮은 것이나 한 띠의 땅에 심은 것도 없이 항상 세내어 살면서 황량하고 어렵게 지냈다. <…> 한 채의 집을 짓기를 청하자,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의 본성을 온전히 하면 실로 마음이 편안하니, 사는 곳이 누추한들 어찌 병통이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겨울에는 한 벌의 갓옷도 없고 여름에는 여벌의 옷이 없었다. 돌아가신 뒤에는 부조를 기다려서야 염습하고 관을 만들었다. 아, 공은 참으로 이른바 신선 중의 사람이라 하겠다.”(“早致宰列, 未有一瓦之覆, 一壘之植, 常僦屋以居, 荒涼艱楚, <…> 請構一舍, 則曰, 毋, 以全吾素性, 苟心安矣, 居處之陋, 庸何病乎, 冬無一裘, 夏欠剩衣, 捐館之後, 待贈賻而斂棺, 嗚呼, 公眞所謂神仙中人矣.”) 참조.

36) 류진, 『修巖先生年譜』 2, 洪汝河, 「行狀」, “중년부터 상주의 시리에 살았다. 관직을 그만두고 돌아올 때마다 토담집이 쓸쓸하였고, 죽도 계속 먹을 수 없었으나 선생은 가난을 편안히 여기며 분수로 여기고 기쁘게 스스로 즐겨워하였다.”(“自中歲寓商之柴里, 每官罷還, 環堵蕭然, 饘粥不繼, 而先生安貧推分, 衍然自樂.”) 참조.

삶과 학문의 근원은 안연의 안빈낙도와 연결되어 있다. 심재 조공섭은 비록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가서 살 수 없었지만, 비슬산 깊은 계곡 아래에서 가난하지만 도를 즐기며 편안하게 살고자 했다. 다음의 자료는 당대 선비들의 실태를 적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일군의 학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거짓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서, 일찍이 네댓 해의 힘을 아낌없이 들여 심어 권의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 꾸미거나 근거 없이 지어내어, 표준으로 삼아 지향할 곳이 없습니다. 스스로 글 읽기에 능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또한 糟粕만을 따내어서 입과 귀로만 하는 학문의 자료나 글을 화려하게 꾸미는 거리로 삼고 있는데 불과할 뿐이고, 능히 정밀하게 생각하고 알차게 체득해내어 깊이 탐구해서 스스로 터득할 계획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서, 궁극에는 역시 의지하기에 부족합니다.³⁷⁾

위의 글은 심재 조공섭이 1919년에 쓴 편지글, 「학부 김영선에게 답함 기미년」이다. 1919년은 이미 조선이 망하고 다시 독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난세이다. 이때의 선비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다. 나라가 망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과연 옛 전통이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과 혼란함으로 인해 당대의 선비들은 공부하는 시늉만 했던 것이다.

심재 조공섭은 이러한 당대의 선비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학문에 제대로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재 조공섭은 정밀하게 생각하고 독서한 것을 체득하여 깊이 탐구하여 스스로 터득해

37) 조공섭, 『암서집』 14, 「答金學夫 永善」 己未, “然觀今日一等學者, 多是虛作如此聲貌, 而未嘗拚得三五年力, 讀得十數卷書, 所以緣飾杜撰, 無所準向, 其自謂能讀者, 亦不過採掇糟粕, 以資口耳華藻之用, 而未有能精思實體爲深造自得之計, 所以若存若亡, 究竟亦不足倚靠.”

야 한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이 때문에 나로서는,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글을 아주 익숙하게 읽어, 자기에게 돌이켜 성찰해서 알차게 체득하도록 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합니다.”³⁸⁾라고 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도학의 실천은 익숙하게 책을 읽고 성찰하여 체득하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비록 성현이 살아있어도 이러한 말씀을 당대에 남기고 실천하라고 했을 것이다. 이러한 심재 조공섭의 도학 실천은 실질적인 애민으로 발현되고 있었다.

옛날부터 산천에는,
 제후만이 제사를 지냈으니.
 서민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예로는 혹 외람되고 어긋난다오.
 금년의 재해는,
 근래에 드물었던 일이었나니.
 애달프다 우리 사람들,
 모두 다 죽게 될 지경이 됐네.
 위로 제후가 희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신령님 우릴 위해 굽어보시며,
 시름하며 보살피 주시길 않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백성들,
 제 스스로 아뢰지는 못하나니.
 그 누가 신령님의 마음을 얻어,
 하늘님의 마음을 되돌릴는지.
 한결같이 별만 나는 어긋난 기후,
 봄에서 여름까지 계속되는데.
 흙에는 씨앗을 심어놓았고,

在古山川
 惟侯得祭
 庶民而祀
 禮或僭差
 今茲之災
 近歲所罕
 哀我含齒
 將至盡劉
 上無君公
 陳牲瘞璧
 神莫欽顧
 爲我省憂
 如我小民
 不自控告
 孰得神意
 以回天心
 一暘之愆
 徂春跨夏
 入土有種

38) 조공섭, 『암서집』 14, 「答金學夫 永善」 己未, “是故區區拙法, 惟有令學者讀書精熟, 反己而實體之而已.”

물에는 모가 자라 있다네.	出水有苗
물은 마르고 흙은 타들어가,	水涸土焦
병이 들지 아니한 모가 없으니.	無苗不病
대지는 더욱더 비를 바란 것,	大地彌望
이 지역의 바로 이 땅이라오.	爾界此疆 ³⁹⁾

위의 글은 심재 조공섭이 1924년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 지은 축문, 「琵琶山祈雨文 爲里人作 甲子」의 일부분 중 전반부이다. 심재 조공섭이 1914년에 비슬산에 은거를 했으니, 이미 1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 예로부터 천자와 제후만이 산천에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심재 조공섭은 가뭄으로 인한 마을사람들의 농사 걱정을 헤아려 선비로써 산천에 올리는 제문을 짓고 있다. 비록 그가 비슬산에 은거했지만 주변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을 생각하고 있었다. 즉 그의 애민이 발현되고 있었다. 이는 적극적인 도학의 실천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처사다.

심재 조공섭은 홀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한 몸이 되어 간절하게 산천의 신령에게 고하고 있었다. 그는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 모으고, 우리들의 희생과 술 정결히 하여, 서둘러 날을 잡아, 신령님께 아뢰웁니다. 바라옵나니 감통을 하시어, 단비로 들판 적셔 주셔서, 사람들과 만물을 소생시키어, 하느님께 보답하게 해주소서.”⁴⁰⁾라고 하였다. 심재 조공섭의 기우제는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한 마음에서 우러난 실천적 행위로 인식된다. 당대 일제강점기 아래 농사일조차 흉년이 된다면, 백성들의 고통은 실로 엄청난 재앙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심재 조공섭은 백성과 한 몸이 되어 기우제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39) 조공섭, 『암서집』 25, 「琵琶山祈雨文 爲里人作」 甲子

40) 조공섭, 『암서집』 25, 「琵琶山祈雨文 爲里人作」 甲子, “聚我心誠, 潔我牲酒, 不遑筮日, 來籲于神, 庶幾感通, 渥以甘澍, 昭穌民物, 報答旻天.”

심재 조공섭이 비슬산으로 들어가 은일한 목적은 도학을 전일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는 일제강점기라는 불우한 상황일수록 더욱 학문에 침잠 반복하고, 도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입으로만 유자의 흥내를 내는 당대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었다. 심재 조공섭은 성현의 도를 몸소 실천하고자 했고, 이를 전승하려고 노력했다. 나아가 이러한 도학정신은 주변의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으로 승화되어 발현되고 있었다.

Ⅲ.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求道的 人格체 완성

일제강점기의 선비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중 심재 조공섭은 나라가 망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백이숙제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했다. 이러한 행위를 행한 당대의 선비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칭송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특히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 일대에 은거하여 사라져가는 대구의 문풍을 흥기시키고 있었다. 비슬산은 이러한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배경 공간이 되어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비슬산=심재 조공섭’이라는 공식을 일반화할 수 있다. 그는 비슬산에서 사라져 가는 도학정신을 발현하고 몸소 실천하고 있었다. 이는 비슬산의 깊은 곳, 그의 작은 재사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살고 있는 곳에 반드시 재사 몇 칸을 두어 歲事를 행하고 빈객과 일족을 모으고 자제들을 처하게 하는 장소로 삼으니, 이것은 대개 그 습속의 이름 다음인 것이다.⁴¹⁾

41) 조공섭, 『암서집』 20, 「竹林齋記」甲寅, “而所在必有齋舍數間, 以爲修歲事會賓族處子弟之所, 蓋其習尙之美也.”

위의 글에서 재사의 중요성을 알 수 있듯이, 난세에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에서 몇 칸의 재사를 지어, 새로운 아름다운 풍속을 열고자 했다. 그는 나라를 잃은 울분을 비슬산 깊은 산속의 삶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자 했다. 이러한 심재 조공섭의 의중을 알았는지 「李道三哀辭」 己未에서 나타난 사실처럼, 심재 조공섭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 그가 1919년에 제자 이도삼을 위해 지은 제문에 나타나듯이, 이도삼은 성동 때부터 이미 심재 조공섭을 스승으로 모셨고 비슬산으로 이거했을 때도 쫓아서 스승으로 모시고 배움을 청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도삼이 일찍 요절하여 심재 조공섭은 제자의 구도 정신을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또 심재 조공섭이 1914년 비슬산의 정산에 은거하여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했던 것은 求道⁴²⁾이다. 이러한 구도적인 모습은 점차 주변의 선비에게 소문이 나게 되며, 그는 명망과 추승을 받게 된다. 그래서 대구지역을 비롯한 주변의 선비들은 점진적으로 중유하면서 스승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지극한 구도 정신이 없었더라면 주변에 선비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琵琶山에 들어오던 해의 겨울에 高生 玄達 士圭가 찾아와서 『논어』

42) 본고에서 사용한 道學이라는 개념은 원시유교의 求道와 관련 있다. 즉 구도는 요순 우탕문무주공에서 공자 맹자에게 이어진 원시유교의 도학적 실천정신이다. 여기서 말한 도학적 실천정신은 예컨대 이황이 김굉필의 위기지학을 통한 실천궁행이 진정한 도학이라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이에 관해서는 추제협, 「한훤당 김굉필의 도학과 퇴계학」, 『영남학』 제25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p.225 참조). 하지만, 조선의 성리학자들이 구도를 지향했지만 그 적극성과 실천성은 다르다. 특히 심재 조공섭은 남명학과의 여러 인물들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남명이 지향하는 구도 정신을 닮아가고자 했다. 조공섭은 위기지학, 실천궁행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도학정신과 실천을 담보한 구도는 그가 비슬산과 광거당에서의 행한 수양과 강학문화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를 배웠다. 그때 함께 생활하던 사람은 열 몇 명이었는데, 〈…〉 비록 그렇더라도 내 나이 이제 오십인데, 후생들 중 뜻을 가지고 반듯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哀誄 속에 보이니, 내가 이미 늙어 세상을 많이 겪어서인가?⁴³⁾

위의 글은 심재 조공섭이 1923년에 제자 고사규를 위해 지은 애사, 「高士圭哀辭 癸亥」이다. 주자가 무이산의 산수를 좋아하고 즐기며, 무이정사를 지어 은거하여 구도의 문풍을 진작시켰듯이, 심재 조공섭도 그러하고자 했다. 주자는 「精舍」에서 “거문고와 책과 함께 보낸 40년, 산 속의 나그네된 적이 몇 번이었던가. 하루 만에 띠집을 완성하니, 자연스럽게 나 또한 산수에서 머무르게 되었네.”⁴⁴⁾라고 했다. 주자는 무이산에서 책을 읽고 거문고를 연주하며, 산수에 은거하여 구도의 문풍을 진작시키고자 했다.

주자가 무이산에 은일한 구체적인 목적은 깊이 학문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즉 그는 은구지사가 되기를 원했다. 이에 관해 「은구재」의 시에 그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자가 “새벽녘 창가에는 숲 그림자 열리고, 밤 깊으면 베개 위에는 산 속의 샘물 흐르는 소리 들리네. 숨어 사니 다시금 무엇을 구하겠는가, 말 없는 가운데 도심이 길러지네.”⁴⁵⁾라고 했듯이, 심재 조공섭은 은일하여 도심을 기르하고자 했다.⁴⁶⁾ 하지만 연이은 제자의 죽음으로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도를 전승시킬 제자가 점점 줄어들

43) 조공섭, 『암서집』 25, 「高士圭哀辭」 癸亥, “余入山之歲之冬, 高生玄達士圭來學論語, 時同處者十數人, 〈…〉 雖然吾年始五十, 而後生之有志行者, 往往見於哀誄中, 豈吾已老而閱世之多耶.”

44) 朱子, 『朱子大全』 9, 「精舍」, “琴書四十年, 幾作山中客, 一日茅棟成, 居然我泉石.”

45) 주자, 『주자대전』 9, 「隱求齋」, “晨窓林影開, 夜枕山泉響, 隱去復何求, 無言道心長.”

46) 김종구, 「17세기 영남지역 산수유기 연구 - 청량산·지리산·가야산을 중심으로 -」, 경북대 국문과 박사논문, 2018. pp.129-130 참조.

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시에서 그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한 뜻이 잘 드러나고 있다.

아득한 푸른 바다 몇 번 먼지 날렸던가,	悠悠滄海幾揚塵
불품없는 잔손은 아직 수건 적시누나.	眇眇孱孫尙濫巾
누가 믿나 천 년 전 토함산의 그 달빛이,	誰信吐含千載月
저 멀리 비슬산의 조각구름 가까이함을.	遙將琵琶片雲親 ⁴⁷⁾

위의 글은 「토함산에서 선조 시중공의 시에 받들어 차운하다」이다. 토함산은 신라 시대의 동악으로 호국의 진산이다. 심재 조공섭은 선조 시중공, 흠이 신라가 망한 뒤에 토함산에 은거한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선조가 토함산을 수양산에 빚댄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즉, ‘수양산=토함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심재 조공섭은 비록 토함산과 비슬산과의 거리는 멀지만 선조가 그랬듯이, 그 역시 비슬산을 수양산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신라가 망하고 조선이 망한 역사적 배경과 선조가 토함산에 들어가 지조를 지킨 사실을 통해 심재 조공섭 역시 비슬산에 들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한 것이다. 시제의 부연 설명에, “시중공의 휘는 欽인데, 신라가 망한 뒤에 토함산에 들어가 시를 짓기를, ‘천년의 왕업이 일조에 먼지 되니, 백수의 외로운 신하 수건엔 눈물 가득. 묻노니 수양산은 그 어디 있는 건가. 토함산의 밝은 달만 가까이하고 있네.’(‘千年王業一朝塵, 白首孤臣淚滿巾, 借問首陽何處是, 吐含明月自相親.’)라고 하였다.”라고 한 대목에서 심재 조공섭의 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47) 조공섭, 『암서집』 5, 「吐含山奉次先祖侍中公韻」

‘초상에 그 예를 다하고 제사에 그 정성을 다하면(愼終追遠)’ 그래야 자기의 덕을 후덕하게 함이 되는데, 갑자기 ‘백성의 덕이 후덕한 대로 귀의할 것이다.’라고 하고 ‘친척에게 돈독히 하고’ ‘오랜 친구를 버려두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라 여긴 것이 아닌데, 갑자기 ‘백성들에게 인의 기풍이 흥기하여 야박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禮記』 「曲禮」의 ‘毋不敬’ 이하의 말은 침착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위한 공부를 함인데, 그 아래에서는 바로 ‘백성을 편안히 함’이라 이어지고 있으니, 옛 사람들은 修己와 治人の 사이에 전혀 간격이 없음을 바로 볼 수 있다. 대개 백성들의 기풍을 진작시킴과 자신의 덕성을 기쁨이 특별히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⁴⁸⁾

위의 글에서 심재 조공섭은 『예기』의 예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수기와 치인의 求道의 방편으로 삼고 있었다. 그가 비슬산에 은일한 가장 큰 이유는 조선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는 자신을 성현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구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노력하고 있었다. 심재 조공섭은 자신만의 구도에 머물지 않고 실천적 求道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수기를 온전히 하고, 다음 단계인 치인을 위해 노력했다. 비록 비슬산 일대에서 일어난 문화적 현상이었지만, 그 파급효과는 더 멀리 나아가고 있었다.

심재 조공섭은 율곡이 “도가 밝아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선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천 명이나 되지만 도를 구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고, 도를 구하는 사람은 천 명이나 되지만 도를 이는 사람은 한 명 뿐이고, 도를 이는 사람은 천 명이나 되지만 도를 행하는 사람은 한 명뿐이고, 도를 행하는 사람은 천 명이나 되지만 도를 지키는 사람은 한

48) 조공섭, 『심재집』 31, 「雜識」, “愼終追遠, 方是厚己之德, 而遽曰民德歸厚, 篤親不遺故舊, 非以爲人, 而遽曰民興於仁而不偷, 如曲禮毋不敬以下之言, 是著實爲己之事, 而其下以安民承之, 便見古人於修己治人之間, 都無間隔. 蓋振民育德, 別無他道.”

명뿐입니다.”⁴⁹⁾라고 말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⁵⁰⁾ 심재 조공섭은 도를 밝혀 행하고 지키는 한 사람에 속하고자 했다. 즉 그는 비슬산에 은일하여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구도적 인격체를 완성하고자 했던 것이 최종 목표였다.

일제강점기에 세상을 향한 선비의 출처는 다양했다. 그 중 심재 조공섭은 백이숙제처럼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자 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비슬산으로 들어가 작은 띠집에서 생활하며, 자신의 수양뿐만 아니라 후학을 양성하고 백성들의 안녕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선조가 신라가 망한 뒤에 토함산에 들어가 지조를 지켰듯이, 그 역시 비슬산에 들어가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구도를 몸소 함양, 실천하며 지키고 있었다.

IV. 결론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 은일 시절, 문영박의 서재를 오가며 학문과 강학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에서 정산서당을 지어 후학을 육성하는 점은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한다. 1919년 3월 「일본총독과 동포대중에게 보내는 글」을草하다가 발각되어 17일간 구속당했다. 1928년 겨울, 강학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문인들은 정산에서 비슬산 서쪽 雙溪로 이거하기를 바랐다. 그리고 龜溪書堂을 지어 학문과 강학을 하였다. 심재 조공섭은 비슬산 깊이 들어가고자 했으나, 주위의 사람들이 심재 조공섭의 학문과 사상

49) 이 이, 『栗谷全書拾遺』 3, 「與李景魯」, “道之不明不行, 厥惟久矣, 儒名者千, 而求道者一, 求道者千, 而知道者一, 知道者千, 而行道者一, 行道者千, 而守道者一.”

50) 심재 조공섭은 「答丁君瑞」 壬戌에서 율곡의 말을 인용하며, 당대의 선비를 비판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반성과 정군서에게도 권고를 하여 도를 실천하고 지키는 일을 최대의 숙원사업으로 여기고 있었다.

을 가까이에서 접하기 위해 오히려 세상 속 가까이 나오게 한 것이다. 심재 조공섭은 여기에 대응해서 현실과 밀접한 학문과 실천을 영위하게 된다.

특히, 비슬산 은일 이후에 심재 조공섭은 학문을 집대성하는 업적을 남긴다. 심재 조공섭은 1928년 『가례집해』를 교정하고 서문을 지었다. 『가례집해』는 一庵 辛夢參(1648-1711)이 『家禮』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 해설한 책이다. 이 책은 선유들의 학설, 자신의 의견, 圖를 그려 1928년 일암 신몽참의 후손인 辛和植이 9권 5책으로 편집, 석판본으로 간행했다. 심재 조공섭이 이 책의 서문, 「刊家禮輯解序」을 집필했고 그 외 다양한 학문의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많다. 이와 같은 예는 심재 조공섭이 비슬산에 은거하여 학문의 깊이가 깊어졌으며, 넓고 광대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명성이 주변 및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되었다. 이처럼 심재 조공섭이 비슬산에 은일에서 일궈낸 현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근대전환기에 심재 조공섭의 선택은 은일을 지향해서 이상향을 지향하고 서정을 즐기려 했다. 그는 당대의 혼란함과 불우한 시대를 잠시 잊고자 산수와 노니는 즐거움을 갖고자 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 세상 가까이 나오라고 했지만, 그는 더욱 비슬산 깊숙이 들어가고자 했다. 심재 조공섭은 조선이 망한 시대적 격분을 잊고 이상적 공간에서 서정적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그의 즐거움의 대상은 속세를 벗어나 있는 산수 그 자체였다.

둘째, 심재 조공섭은 그의 명성으로 인해 비슬산의 광거당·정산·쌍계 일대에서 열띤 강학이 이뤄지고 있었다. 광거당은 대구 선비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 선비들의 강학문화의 성소이었고, 심재 조공섭이 거주하는 서당 일대에도 선비들의 모여 그를 스승으로 모셔 강학 열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더욱이 먼 거리에서 찾아와 배움을 청하는 선비들이 많았기에 심재 조

공섭의 명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강학문화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비술산의 산수를 통해 자신의 수신 공간으로 삼고 있었다. 비술산 일대에 전대의 수많은 현인이 나타난 점을 강조하며, 그 역시 수신을 하여 훌륭한 현자가 되길 원했다.

셋째, 근대전환기에는 선비라는 虛名만 존재했고, 심재 조공섭처럼 실제로 도학을 실천하는 인물은 드물었다. 그는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몸소 적극적으로 도를 실천하고 있었다. 비술산에 은일한 가장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이것이었다. 심재 조공섭은 미리 계획을 세웠고, 비록 작은 띠집이었지만 가족과 함께 비술산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산수를 통해 자신의 내면의 수양뿐만 아니라, 주변의 동학, 후학과 함께 강학문화를 형성했고, 백성들의 안녕을 생각하기도 했다. 지금 비술산 일대를 답사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한 촌락 지대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심재 조공섭은 이들을 보살폈고, 함께 기우제를 지내는 실천적 행동을 하였다.

근대전환기, 즉 일제강점기에 심재 조공섭이 행한 일련의 문화는 백이숙제를 떠오르게 한다. 하지만 그는 백이숙제가 행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일에만 국한하고 있지 않았다. 심재 조공섭은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교화시키고 있었다. 동학과 후학과 함께 강학문화를 형성하며 서정적 낭만을 즐기고 있었고, 도학을 실천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러한 근본에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며 구도적 인격체, 현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노력은 훗날 ‘비술산=심재 조공섭’이라는 명성과 함께 존송되고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근대전환기의 인물군과 그 출처관 및 산수관을 비교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당대 선비들의 처세를 파악하여 제대로 된 선비상의 전범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심재 조공섭의 교유인물을 중심

으로 그 동학군의 특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가 교유한 인물들은 영남의 마지막 선비이자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친 인물들이 많다. 마지막으로 비슬산 광거당에서 일어난 강화 및 풍류문화를 따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논의처럼 광거당은 당대의 대구 유학의 현주소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산과 인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산과 인물을 활성화하는 데에 공헌할 것이다. 기존 비슬산에 관해서는 삼국유사와 관련된 것만 홍보하고 있어, 지역성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그 주제와 상징성이 역부족하다. 앞선 논의는 ‘청량산=퇴계, 지리산=남명’에 관한 연구만 시행되었다. ‘비슬산=심재 조공섭’이라는 등식의 성립과 비슬산을 성역화 하는 작업에 기여할 것이다. 또 근대전환기 난세에 선비가 지향한 전통 교육의 활성화와 강화문화의 전승도 의미가 있다. 특히 비슬산의 여러 서재와 광거당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난 대구지역의 유학의 문풍은 일제강점기를 벗어나고 미래로 나아가는 힘을 마련한 것이다. 즉 근대전환기의 유학자가 현실을 극복하고자 일궈낸 삶의 한 단면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외세의 침략 시기는 우리의 전통과 주체성 및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아가 심재 조공섭의 정산서당과 구계서당을 복원하여 비슬산을 지역과 전국에 알리는 시너지 효과를 발산할 것이다. 3·1운동 100주년이 지나면서 다양한 기념사업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근대전환기의 인물에 대한 관심과 복원운동은 아직 역부족이다. 다행히 대구는 근대골목과 관련된 관광 상품이 이미 파급효과를 드러내고 있기에 조금만 노력한다면 심재 조공섭과 관련된 문화산업도 부흥이 되고 지역과 전국에 파급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漢書』

류 진, 『修巖先生年譜』

유 잠, 『澤齋集』

이 이, 『栗谷全書拾遺』

이덕형, 『한음선생문고』

조공섭, 『深齋續集』

조공섭, 『深齋集』

조공섭, 『巖棲集』

주 자, 『朱子大全』

고전종합DB(<http://db.itkc.or.kr>)

강구윤, 「심재 조공섭의 시세계의 한 국면-기행시와 영사시를 중심으로」, 『東方漢文學』제22집, 동방한문학회, 2002, pp.97-114.

강동욱, 「深齋 曹兢燮 文論」, 『南冥學研究』제5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5, pp.201-224.

강동욱, 「심재 조공섭의 남명학 계승의 일단면」, 『선비문화』제11집, 남명학연구원, 2007, pp.92-100.

강동욱, 「深齋 曹兢燮의 學問性向과 文論」, 경상대학교 국어국문 박사논문, 2000, pp.1-184.

강성숙, 「深齋 曹兢燮의 여성 인식 연구」, 『동양한문학회연구』제46집, 동양한문학회(구 부산한문학회), 2017, pp.5-36.

김보경, 「심재 조공섭의 시 인식 고찰」, 『大東漢文學』제42집, 대동한문학회, 2015, pp.381-421.

김애이, 「深齋 曹兢燮의 文學論과 賦의 特性」, 全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박사논문, 1996, pp.1-100.

김종구, 「17세기 영남지역 산수유기 연구 - 청량산 · 지리산 · 가야산을 중심으로 -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8, pp.1-231.

김진균, 「深齋 曹兢燮의 道德文章 추구 논리」, 『嶺南學』제11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pp.101-122.

- 문희응, 『인홍록』, 규장각, 2003.
- 신승훈, 「深齋 曹兢燮의 思想과 經學에 관하여 - 經學的 言述에 대한 評價를 檢하여」, 『동양한문학연구』제25집, 동양한문학회, 2007, pp.187-226.
- 신승훈, 「深齋 曹兢燮의 學問方向과 經學에 관한 一考」, 『영남학』제11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pp.123-149.
- 임종진, 「深齋 曹兢燮의 修養論」, 『영남학』제11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7, pp.45-72.
- 임종진, 「한주학파의 성리학에 대한 심재 조공섭의 비판」, 『한국학논집』제70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pp.153-181.
- 천병돈, 「蘭谷 李建芳과 深齋 曹兢燮의 도덕문장론」, 『陽明學』제38집, 한국양명학회, 2014, pp.101-126.
- 천병돈, 「深齋 曹兢燮의 格物설 연구」, 『陽明學』제39집, 한국양명학회, 2014, pp.145-169.
- 천병돈, 「深齋 曹兢燮의 왕양명 비판」, 『한국학논집』제56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4, pp.177-202.
- 추제협, 「한훤당 김굉필의 도학과 퇴계학」, 『영남학』제25집,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14, pp.211-242.
- 황명환, 「근대전환기 한시의 『論語』 수용 양상과 그 의미 : 響山 李晩燾와 深齋 曹兢燮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논문, 2016, pp.1-111.

Abstract

The Perception of Simjae(深齋) Jo, GeungSup on Biseul Mountain and Its Meaning

Kim, Jong-gu

Simjae(深齋) Jo, GeungSup(1873-1933) took an interest in Biseul Mountain(琵琶山), which is seclusive.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his seclusion on this mountain and the meaning of it.

The seclusion of Simjae(深齋) Jo, GeungSup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e pursued seclusiveness, so that he perceived Biseul mountain as a place to enjoy lyricism appreciation. He wanted to go deeper into the natural beauty and scenery while forgetting the disagreeable circumstance at the time of the turning point towards modernization. Second, Jo, GeungSup saw the areas of Gwanggeodang, Jungssan, and Ssangye as sanctuary places in pursuit of studying. Third, he perceived the whole areas of Biseul mountain as space of practically practicing Taoism. Jo, GeungSup was not a scholar with a false reputation at the time of turning point towards modernization, but he was a real literary man.

The culture in Biseul mountain, performed by Jo, GeungSup makes us think of Hakui and Shukusei in a sense that they kept practicing fidelity and integrity. Furthermore, he manifested not only self-discipline but also loving for people. It reveals his efforts for completing prayful speculation, seeking for the truth as a human, along with the spirit of fidelity and integrity.

Biseul Mountain(琵琶山) is the main mountain of Daegu along with Palgong Mountain. Jo, GeungSup Seonbi culture of traditional Confucianism, which was centered on Biseul Mountain(琵琶山)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is remarkable at the exhibition stand. It is a strong foundation and a foundation that can bring about the transmission of a lost traditional study abroad culture and a ruined country.

Key Word : Simjae(深齋) Jo, GeungSup, Biseul Mountain(琵琶山), seclusion, lyricism, pursuit of study, space for self-discipline, Taoism, space for loving people, fidelity and integrity, seeking the truth

김종구

소속 : 남명학연구원 사무국장

전자우편 : piny0928@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01월 30일 투고되어
2020년 03월 0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03월 11일 게재 확정됨.